밤새 고국 가족 생사 확인 '안절부절'

네팔 강진…애타는 광주·전남 네팔인들
하남산단 근로자 조부·모친 사망소식 듣고 통곡
광산구 월곡동 네팔인교회선 희생자 추모 예배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 외국인들은 가족에 대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에 등록된 네팔 국적 외국인은 2만5964명으로 광주·전남에서는 1446명(광주 401명·전남 1045명)이 머무르고 있다. 전년도(1015명)에 비해 42.4% 늘어난 수치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네팔인센터(네팔인교회)'도 전날 밤 들려온 참사 소식을 나누는 네팔인들로 북적였다.

인도 출신 목사 바쿨 다이마리(44)씨가 운영하는 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네팔인들이 모여 주일 예배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회원은 108명이다.

26일 센터를 찾은 네팔인 50여명은 지난 밤 고향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는지가 안부 인사였다. 이들은 예배에 앞서 5분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기원했다.

센터 회원들은 다음달 2일부터 네팔인 동포 단체 NRN(Non-Resident Nepali Association)을 통해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NRN은 세계 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네팔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내에서 결성된 시민단체다.

하남산단에서 근무하는 쁘램(27)씨는 지난 25일 밤 지진 소식을 접한 뒤 가족들 안부를 확인하느라 밤을 지샜다.

그는 뒤늦게 카트만두 동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신두팔족'에 거주하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그는 4년 전 결혼 준비를 위해 한국에 온 뒤 고향을 찾지 않았던 탓에 가족의 사망 소식으로 슬픔이 더욱 컸다.

쁘램씨는 "아버지는 다행히 집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내 집과 동네 이웃집 25곳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한다"면서 "항공편을 구하는 대로 네팔의 아버지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온 우샤 가우떰(여·34)씨는 친정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다음날 새벽에야 확인했다. 우샤씨는 가족들의 무사함을 확인했지만 워낙 거대한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점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우샤씨 아버지는 교회 예배 중 진동을 느끼자마자 건물에서 빠져나와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네팔인들은 하루종일 가족들과의 연락을 시도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과 기업들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네팔인센터측은 김경학 전남대 교수의 경우 네팔 이주노동자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10일 동안 네팔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 26일 귀국 비행기편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6일 현재 네팔 체류자에 대해 신변안전 유의를 요구하는 '여행 유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이천영 이사장은 "광주에 거주하는 네팔인 10명 중 8명은 하남·평동산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국제 결혼을 한 이주여성이 대부분"이라며 "인구 3000만명인 네팔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네팔인이 적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
벌금 200만원 선고
교육감 선거 컨설팅 관련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총장은 공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김 총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때 광주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컨설팅 계약을 하고 그 비용 중 수백만원을 불법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총장이 선거 컨설팅 계약 당시 언론사 네트워크 형성 항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구의 날' 나무액자 만들기

지난 25일 오후 '45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이 마련한 체험행사 '나무로 액자만들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흥건설 비자금 200억 사용처 집중 추적

검찰, 정원주 대표이사 구속

정원주(48) 중흥건설 대표이사가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정 대표가 빼돌린 회사 자금을 어디로 얼만큼 썼는지에 대해 집중될 전망으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 대표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인 혐의(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이는 데 비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비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근무 2년 넘은 광주·곡성공장 하청 노동자
금호타이어의 근로자로 봐야"

협력업체 132명 항소심 승소
사측, 법리 검토 후 상고 결정

근무기간 2년이 넘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금호타이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판단과 같은 취지로,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상당수 제조업체의 고용 관행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4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쟁점이 된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에 노무 도급을 준 것인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을 받은 것이지 여부와 관련,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의 작업 지시는 내용과 빈도에 비춰 구체적 업무 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2005년 6월 이전 입사, 2007년 7월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간 근무한 근로자 7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2005년 7월 이후 입사한 6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법리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스공사 재산세 감면대상 아니다" 판결

광주고법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으로 볼 수 없어"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병칠)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보유한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가스공사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직접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감면 대상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으로, 가스공사 측은 자치단체가 공사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가스공사의 주요 주주는 지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가(26.86%), 한전(24.45%), 서울(3.99%)·경기(1.22%)·인천(0.70%) 등 13개 광역단체(합계 9.48%)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립 당시 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의무를 규정한 가스공사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지분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가스공사가 유사 사안과 관련, 전국 기초·광역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애견 관리 잘하세요…이웃 주민 문 맹견 주인 벌금형

○…법원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猛犬) 주인에게 원심대로 벌금형을 부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송기석)에 따르면 A(78)씨는 지난 2009년 8월 및 2013년 10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 등이 이웃 주민(68)의 손과 발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뒤 1심 판결(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최근 기각당했다는 것.

○…재판부는 "자신이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물건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레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11억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62) 527-76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3층건물/골프,헬스 등〉
▣ 적극 추천물건
▣ 주변 아파트 단지
▣ 수익성 상가
전주 완산구 효자동 (토지 502평 건물 689평)
감정가 25억 최저가 12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⑤ 수완지구 모아엘가앞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융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⑥ 수완지구 롯데마트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대신경매 〈추천물건〉
펜션/민박(2층상가)
담양 금성면
☑ 건축 개발사업 기획가능
☑ 건설사 추천 물건
☑ 개발시 20억 수익발생 예상
(토 9600㎡/ 건물 628㎡)
적극추천
감정가 28억
최저가 9억9천
010-7384-7800
010-6832-97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①북구 매곡동/근린시설 4층(토1650 /건1317㎡) 다번다 1억6천/최저가1억1천
②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감정가 6억6천,최저가 3억6천
③북구 일곡동/근린시설(폐차장)(토960,7㎡/건822,6㎡)감정가41억,최저가28억
④동구 충장로/근린상가(토155,4㎡/건628,35㎡)감정가 5억6천,최저가3억9천
수익성상가(근린주택/공장)
①북구 대촌동/공장 (토3337,5㎡/건3035,7㎡)감정가25억 최저가18억
②광산구 소촌동 (토400㎡,건294㎡) 감정가 3억7천 최저가3억7천
③북구 일곡동/근린시설(폐차장)(토960,7㎡/건822,6㎡)감정가41억,최저가28억
④광산구 하남/공장(토1734,3㎡/건2635,72㎡)감정가14억 최저가6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①담양 금성면(3층,펜션)(토30308㎡,건2916㎡)감정가27억/최저가9억9천
②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물,예식장)(토8474㎡,건11735㎡)감정가152억/최저가85억
③전주완산구효자동(토502,453㎡,건689,083㎡)감정가25억/최저가13억
④나주송월동(토8474㎡,건11735,18㎡)감정가150억/최저가68억
⑤광양시중동(토767㎡,건3276,78㎡)감정가26억/최저가26억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②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① 오전반 11시 ~12시 30분
② 오후반 7시 ~ 8시 30분
③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토목~개발 · 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4층) 감정가 1억6천→최저가 1억1천
2 북구 일곡동 (근린시설/폐차장) 감정가 27억→최저가9억9천
3 담양군 금성면 (펜션) 토지 9000평 감정가 27억→최저가 9억9천
062-527-7600
010-7384-7800